수미산으로 불린 낭산 흔적들 한자리에

국립경주博 특별전 '낭산, 도리천 가는 길' 특별전시관 9월 12일까지

전 황복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금제불상 등
5개 주제나눠 낭산 관련 유물 389점 선보여
국보 금제불상 2구 · 사리 장엄구 최초 공개
경주 낭산과 관련 유물 알리고 의미 종합적 조명


전 황복사 삼층석탑 사리 장엄구의 금제 불상(통일신라, 692년 및 706년)


능지탑 출토 석조불 좌상(고려)


전 황복사 출토 신장상(통일신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재)성림문화재연구원과 함께 9월 12일까지 특별전시관에서 특별전 '낭산, 도리천 가는 길' 을 공동 개최한다.

신라인이 각별하게 여긴 경주 낭산과 낭산에 남아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이들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이번 전시에서는 전 황복사 삼층석탑 사리 장엄구의 금제 불상(통일신라, 692년 및 706년) 등 낭산 관련 유물 389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프롤로그 '낭산으로의 초대' △Ⅰ부 '신들이 노닐던 세계' △Ⅱ부 '왕들이 잠든 세상' △Ⅲ부 '소망과 포용의 공간' △'전시를 마치며' (에필로그) 등 5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프롤로그-낭산으로의 초대' 에서는 낭산의 위치와 낭산에 있는 문화유산을 소개한다.

△Ⅰ부 '신들이 노닐던 세계' 에서는 사천왕사와 전(傳)황복사 등 낭산의 사찰에서 다양한 신장상(神將像)이 만들어진 배경을 소개한다. 토착신앙의 성지이던 낭산이 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의 공간으로 변했지만, 신성한 공간이라는 인식과 국가를 지켜준다는 상징성만큼은 그대로 이어진 배경을 소개한다.

△Ⅱ부 '왕들이 잠든 세상' 은 진평왕릉과 선덕여왕릉이 낭산 일원에 들어서면서 낭산 일대가 신라왕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하였고, 그 과정에서 왕의 명복을 비는 사찰이 건립되었음을 소개한다. 1942년 전 황복사 삼층석탑에서 수습된 사리 장엄구는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데, 국보로 지정된 금제 불상 2구를 비롯한 사리 장엄구가 세상에 나온 지 80년 만에 처음으로 일괄 전시되어 특별전의 의미를 더한다.

△Ⅲ부 '소망과 포용의 공간' 에서는 낭산이 국가와 왕실의 안녕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소망을 기원하던 공간으로 성격이 확장되었음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국립경주박물관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능지탑에서 발굴된 유물을 함께 선보인다. 능지탑의 원형을 짐작케 하는 벽전(甓塼)과 상륜부 장식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에 낭산 서쪽 자락에서 발견되었다가 국립경주박물관에 남은 십일면관음보살상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약사불상이 처음으로 함께 전시되는데,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던 신라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전시를 마치며(에필로그)' 에서는 사역(寺域)의 대부분이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명칭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전 황복사의 사례를 소개하며, 낭산의 문화유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특별전은 그동안 사람들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던 경주 낭산과 그 문화유산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주에서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재)성림문화재연구원이 공동으로 전시를 개최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삼국유사〉에는 경주 낭산과 관련한 흥미로운 내용이 실려 있다. 신라 제27대 왕인 선덕여왕은 자신이 죽거든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자 신하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고, 선덕여왕은 낭산의 남쪽이라고 일러주었다. 불경에는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하였고, 문무왕 19년(679) 낭산 기슭에 사천왕사가 세워지자 신라인들은 그제야 선덕여왕의 신령하고 성스러움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신라인들에게 수미산으로 여겨진 경주 낭산은 토착신앙의 성지였다. 사천왕사가 세워진 곳은 원래 신들이 노닌다는 신유림(神遊林)' 이 있었다. 413년 누각 형태의 구름이 낭산에서 일어났고 향기가 가득 퍼져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실성 이사금은 "이는 반드시 신선이 내려와 노니는 것이니, 응당 이곳은 복스러운 땅"이라며 낭산에서는 나무를 베는 것조차 금했다. 이러한 신령스러움 때문에 낭산은 중요한 제장(祭場)으로 사용되었으며, 신라의 중요한 명산대천 가운데 으뜸인 삼산(三山)의 하나로 대사(大祀)가 거행되는 공간이었다. 문의 (054)740-7500.


조승희 作, 꽃문(자연으로)20호

수채화로 만나는 전통문양 속 미학

조승희 개인전 '전통문양 수채화로 꽃피우다' 갤러리인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국적 문양의 보편적 기호성서 찾아낸 미학을 수채화로 옮겨

산사의 꽃문, 단청 등 한국적 문양들을 소재로 한 수채화 전시가 열린다. 수채화가 조승희 작가는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갤러리인에서 수채화전 '전통문양 수채화로 꽃피우다' 를 개최한다. 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금동반가사유상, 꽃문, 단청 등 한국의 전통 문양을 수채화로 옮긴 작품을 선보인다.

조승희 작가의 그림은 '문양' 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그 문양은 찬란한 우리 문화의 유물들이다. 조 작가는 한국적 문양의 보편적인 기호성에서 찾아낸 미학을 수채화로 옮기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조 작가 작품의 오브제가 된 '문양' 은 시대적으로 변화를 보이면서 조 작가의 작품세계를 만들어왔다. 초기 작품의 문양들은 찬란한 우리 문화의 유물들이었다면 후기 작품에 등장하는 문양은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문양들이다.

조 작가는 2007년 '생활의 발견' 시리즈에서 색바랜 산사의 '꽃문' 과 보자기와 복주머니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에 몰두했고, 2009년의 '찬란한 유산' 시리즈는 유물에 의한 한국적 역사성에 집중했다. 작품의 크기도 커졌으며 화면 구성에 있어 디지털적 화면구성이 돋보였다. 2015~2017년 시기부터는 한국적 담론에서 작가 주변의 개별담론으로 변한다. 그래서 작품 타이틀로 '추억여행' 이 등장하고 베개의 문양이 등장한다. 2019~2021년에는 주제 사물이 클로즈업되어 등장함과 동시에 장독대가 등장한다. 또한 '추억여행' 시리즈에서 그 추억의 구체적 대상으로 '엄마의 뜰' 이 등장한다. 이것은 조 작가의 작품제작 관점이 주변의 거대담론 속에서 점점 자신의 얘기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 작가의 작품들은 2019년을 기점으로 소환된 문양 속에서 한국적 의미성을 찾고자한 반면 2019년 이후에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삶의 의식이 담긴 장독대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베개의 문양 강조와 장독대의 등장 속에는 문양의 보편적 상징의 의미를 넘어서는 '그리움' 이 있다. 장수의 문양이 있는 베개는 이부자리가 아닌 곳에 놓여 있으며, 무덤덤한 장독대에는 장소성이 배제된 채 꽃이 피어있다. 또한 표현의 화려함과 잔재주가 보이지 않는다. 조 작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공간이었으며 조 작가의 그리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 작가의 그림에서 보이는 '그리움' 은 회상적 기억에 의존하기에 화려함과 복합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조 작가의 작품 속에는 표현의 화려함이 없고 담백하다. 그 그리움은 한국적 문양의 보편적 기호성을 넘어 조 작가의 개인적 특수성으로 확장된다. 조승희 작가는 담담한 수채화를 고집한다. 그렇게 때문에 조 작가의 수채화는 무분별한 디지털적 표현의 복합적 이미지의 난무 속에서 벗어난 순수함이 작품세계를 이룬다.

수채화가 조승희 작가는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부스 개인전 5회를 비롯 국내외 그룹전 및 단체전에 다수 참가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1회, 목우공모전 입선 2회, 한국수채화협회공모전 우수상, 입선 6회, 대한민국 회화대전 특선 2회, 입선, 나혜석 미술대전 특선, 입선 등 다수 수상했다. 문의 (02)737-5989. 박재완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